

미시사와 역사인류학의 새로운 흐름 보여주는 고전적 저작들

《치즈와 구더기》《역사인류학이란 무엇인가》

조한욱 |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이탈리아와 독일 역사학계의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저작 두 권이 번역·출간됐다. 카를로 진즈부르그의 《치즈와 구더기》는 16세기 이탈리아의 한 방앗간 주인인 메노키오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 당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갈등을 논한다. 리하르트 반 윌멘의 《역사인류학이란 무엇인가》는 역사인류학이 태동하기까지의 과정, 역사인류학의 근본적인 시각과 그 주제 등을 제시한다. 이 책들은 유럽의 역사학 연구 경향이 미국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역사학계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신문화사'의 수용에 관한 것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신문화사가 과연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새로운 것인가, 신문화사의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신문화사가 넘어서려 하던 사회사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며 희생양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식민지 지배와 분단의 역사가 남긴 상처가 아직도 완전하게 아물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계급과 민족의 문제를 뒷전에 두는 신문화사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가 하는 문제점들이 비판자들의 해 꾸준히 제기됐다. 확실히 이런 비판은 신문화사의 추종자들이 경청하면서 자신들의 논지를 더욱 진지하고 세련되게 가다듬을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참다운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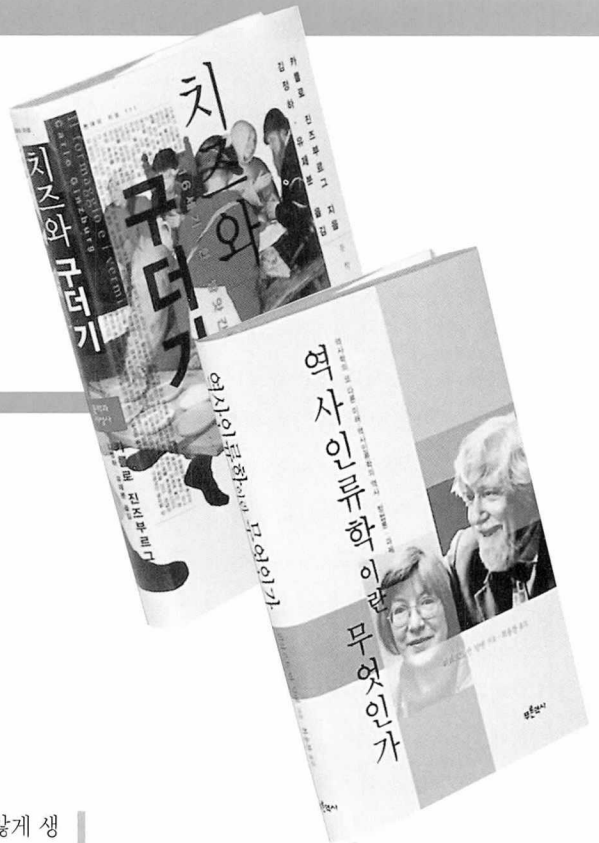
한편 그런 쟁점들과 함께 논란거리가 됐던 것 가운데 하나는 미국 역사학계의 연구만을 답습하면서, 그것에 '신문화사'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것은 어느 정도 초점에서 벗어난 논평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학자들 사이의 국제적인 교류는 역사학계에서 '조차'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

경을 넘는 공동 연구의 결실이 드물지 않게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이런 형국에서 이탈리아와 독일 역사학계의 경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저작 두 권이 번역·출간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의 중요성을 넘어, 과연 유럽의 경향이 미국의 경향과 다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지 독자들 스스로 가늠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16세기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갈등 그려

김정하와 유제분이 공동 번역한 카를로 진즈부르그의 《치즈와 구더기》(문학과지성사)는 오래 전부터 그 내용과 중요성이 식자들 사이에 회자했던 저작이다. 곧 발간된다는 소문과는 달리 출판이 계속 미뤄지며 '16세기 한 방앗간 주인의 우주관'을 직접 알아보려는 사람들의 궁금증이 더해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원전의 충실한 번역을 위해 영어·독어·일어판본을 대조해가며 번역자와 출판사 사이에 아홉 번에 걸친 교정과정을 거쳐 이 책이 나오게 됐다는 사정을 알게 되면 지체된 출판에 대한 원망은 뛰어난 번역에 대한 찬양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 미시사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공인받고 있는 《치즈와 구더기》는 16세기 북부



카를로 진즈부르그 지음 | 김정하 외 옮김
문학과지성사/A5신/364면/15,000원

리하르트 반 윌멘 지음 | 최용찬 옮김
푸른역사/A5신/216면/13,000원

이탈리아 프리올리 지역의 방앗간 주인이었던 메노키오라는 인물의 전기다. 이단심문 기록에 근거해 씌어진 이 책은 메노키오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16세기 당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사이의 갈등을 논한다. 1532년에 태어난 메노키오라는 방앗간 주인은 읽고 쓸 줄 알았으며 마을에서 면장을 지내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그는 치즈 속에서 구더기가 생겨나듯 천사나 신도 우주의 초기 물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됐다는 이단적인 주장을 하며 신이 삼라만상을 만들었다는 기독교의 창조론을 믿지 않았다. 그리하여 고발당한 그는 1583년 종교재판에 회부돼 심문 받은 뒤 2년 동안 복역하다가 다시는 그런 이단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풀려났다. 그러나 그는 풀려난 뒤에도 다시 이단적인 생각을 말하다가 1598년 다시 고발당한 뒤 이단재판을 통해 처형됐다.

이 이야기는 미시사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먼저 이 이야기에는 메노키오라는 실제 이름을 가진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바뀌 말하면 미시사란 하나의 마을, 가족 또는 개인과 같이 경계가 잘 구획된 현상에 초점을 맞춰 실제 존재하던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다루고 있으며, 그 방법은 마치 인류학자가 현장조사를 하듯 면밀히 추적함으로써 그 현상의 역사적인 의미를 복합적인 사회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치즈와 구더기》는 역사 연구의 방법론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메노키오의 심문기록을 해독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기록은 엘리트 문화의 대표자인 심문관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그 심문의 대화 속에 담긴 권력구조를 파악하려고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이야기 통해 사회적 관계 추적해

서술의 대상만 평범한 인물로 바뀌었을 뿐, 종래의 전기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책은 역사 연구의 한 방향을 연 저작으로 부각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란 《치즈와 구더기》를 위시한 미시사의 저작에서 대상으로 삼는 개인은 역사의 그늘 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갔던 인물들로서, 그들의 삶을 복원시키려는 이유는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삶을 미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미시사가들은 오히려 그들의 삶을 통해 상층의 지배문화와 하층의 민중문화 사이의 간극을 밝히며, 그 사이의 갈등과 대립과 절충의 관계를 밝히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개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이되, 그것 자체에서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추적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미시사가들이 평범한 개인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세계를 복원하려고 시도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난관은, 사료가 별로 없을 뿐더러 얼마 되지 않는 사료마저도 질적으로 왜곡돼 있다는 사실이다. 하층의 농민이나 여성이 연구의 대상일 경우 이런 사료의 문제는 더욱

“미시사가들은 사료를 찾기 위해 민담, 설화, 재판기록, 특이한 사건 기록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문헌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종래의 실증적인 방법이 엘리트 문화에 접근하는 데 유용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남기지 못했던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는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각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쓴 글을 거의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화는 대체적으로 구전문화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시사가들은 사료를 찾기 위해 민담, 설화, 재판기록, 특이한 사건기록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문헌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종래의 실증적인 방법이 엘리트 문화에 접근하는 데 유용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남기지 못했던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는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미시사가 인류학이나 민속학과 같은 인접 학문과 밀접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며, 《치즈와 구더기》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미시사적 시선을 거시적 관계로 확대시켜

이런 이탈리아의 치즈 이야기가 오늘날 역사학계의 흐름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저작은 최용찬이 번역한 독일 역사학자 리하르트 반 뵐멘의 《역사인류학이란 무엇인가》(푸른역사)다. 이 책은 역사인류학이 태동하기까지의 과정, 역사인류학의 근본적인 시각과 그 주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다룬 뒤, 역사인류학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에 일단의 독일 역사가들은 거시적 구조를 강조하는 ‘역사적 사회과학’에 반발하며 일반 대중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 생활의 조건으로 관심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상생활사’나 역사인류학을 옹호했다.

1993년 《역사인류학—문화·사회·일상》이라는 학술지를 창간하면서 구심점을 찾게 된 역사인류학에서는 “행동하고 생각하며, 느끼고 고통받는 구체적인 인간”을 역사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역사인류학에서는 폐쇄적이고 통일적인 인간상을 배제하며, 단지 역사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형성된 인간상에 관심을 둘 뿐이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역사인류학은 미시사적 시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미시사적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거시사적인 관계로 확대시킴으로써 그 중요성을 평가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맥락에서 역사인류학에서는 마녀, 폭력, 육체, 가족, 사생활, 독서 등의 분야로 주제를 확장시키고 있지만, 어떤 주제로 눈을 돌린다 할지라도 단선적인 관찰방식을 넘어 인간행동의 복합성을 제대로 평가하며, 인간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서는 역사학을 성취하기를 원한다.

이탈리아의 《치즈와 구더기》는 독일의 역사인류학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의 많은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 역사인류학이 등장하게 된 사학사적 배경은 미국의 신문화사가 나타나게 된 과정과 흡사한 동기에서 형성됐다. 더구나 반 뵐멘은 독일의 역사인류학이 영국, 미국, 프랑스 등지에서 이뤄진 역사학의 문화적 접근 방식과 친화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이제 우리의 역사학계에 불고 있는 ‘새 바람’이 단순히 어느 특정 국가의 성과만을 ‘답습’한 결과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문화사적 시각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자세다. ■

조한욱 교수는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한국 교원대 역사교육과에 재직중이다.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를 펴냈고 《고양이 대학살》 《문화로 본 새로운 역사》 《프랑스 혁명의 가족 로맨스》 등을 번역했다.